

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질적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합의문

2017년 8월에 출범한 ‘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 협의체’는 그간의 양적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질적혁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, 예술가 기반 문화예술교육가로서 학교 예술강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9차례에 걸친 토의 끝에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.

1. 최종고객인 수요자(학생)를 중심으로 사업을 내실화 한다.
 - 1-1.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및 창의력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대안을 모색한다.
 - 1-2. 학교 예술강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.
 - 1-3. 지역별/학교별 수요에 기반하여 지역 내 예술단체 및 문화시설 연계, 교사와의 프로젝트 수업, 팀 티칭 등 다양한 방식을 추진한다.
2.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으로 분권화한다.
 - 2-1.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지역의 자율과 책임 하에 진행하여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개선한다.
 - 2-2.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으로서 광역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.
 - 2-3. 지역별 여건 및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문체부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.
3.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.
 - 3-1. 초단시간 근로자 형태로 일원화된 근로형태를 강사 희망 및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마련한다.

- 3-2.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교통비 지급 기준을 지역여건에 따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 - 3-3. 실업급여 수급, 4대 보험 등은 노동관계 법령 개정 추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 - 3-4. 무기계약 전환심의위원회에 각 주체별 입장과 논의 사항을 충실히 전달하고 공정한 운영을 요구한다.
 - 3-5. 고용안정을 비롯하여 강사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.
4.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운영방식을 개선한다.
 - 4-1. 선발-배치-연수-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강사가 유입되고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를 확립한다.
 - 4-2. 협의체에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-배치-연수-평가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.
 - 4-3. 아울러 현장에 대한 정밀한 수요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에 적합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간다.
 5.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주체 간 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.

협의체의 각 주체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위 사항의 이행 및 관련 예산 확보와 법제도 정비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.

2018년 1월 10일

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 협의체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○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박종관(위원장) | ○ 예술강사 연대회의 대표 서범석 |
| ○ 서비스연맹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위원장 김광중 | ○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 지부장 김진 |
| ○ 전국예술강사연합(예정연) 대표 호중훈 | ○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손동혁 |
| ○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정지현 | ○ 서울시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장 김동섭 |
| ○ 태을초등학교(군포) 교사 황경희 | ○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정희 |
| ○ 법무법인 민 변호사 박성재 | ○ 충남예총 예술교육팀장 김성태 |
| ○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 박영정 | ○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장 이정현 |
| ○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인력지원본부장 김재경 | |